

송아지 前肢切斷一例

윤 지 순

금강가축병원

1978年 11月 4日 아침 병원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포사라는 곳에서 왕진 요청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 生後 45日齡의 韓牛 송아지가 土佐犬(♀, 3歲)에게 좌측 완관절 부위를 몹시 물려 피부와 근육이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었고, 출혈도 심했다는 것이다. 수술에 필요한 기자재와 의약품을 챙겨서 현장에 갔다,

上腕骨部位를 심하게 물렸는데 3두완근이 완전히 찢렸고 주두가 손상을 입고 몹시 오염되어 있어서 봉합하는 등의 외상치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腕關節切斷術로 生命을 전지면 役牛로는 쓸수 없겠으나 비육우로 사육이 가능할 것 같아 前肢切斷을 권하여 手術 示약서를 받았다

우선 지혈감자, 지압기, 수술 가위, 엘리스 감자, 수술도, 봉합사, 봉합침 등의 기재를 저메스액에 담가 놓고, 창면 주위의 털을 깎고는 깨끗이 면도한 뒤, 요오드팅크를 바르고 건조된 다음 알코홀 스펀지로 깨끗이 닦아 소독했다. 다음에는 림폰 주사액(바이엘화학 제품 0.5ml를 근육주사하고 질계예정선 주위에 2.5% 프로카인으로 국소마취시킨 다음 痛感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교상부위를 위로하여 좌측으로 횡와보정하여 견관절을 절단할 것을 생각하고 견관절로부터 10cm 아래 부분의 피부를 삼각형으로 분리하였다. 상완골에 부착되어 있는 이두완근, 오락완근, 삼두완근 등의 근육들을 분리하고 노출된 상완동맥과 상완정맥 등의 큰 혈관의 양쪽을 지혈감자로 잡고, 그 사이를 봉합사로 결찰하여 큰 출혈을 방지하고 근육과 혈관을 절단하였다. 결찰과 압박으로 小出血들을 막고 견관절에서 前肢를 분리하였다. 절단된 근육면들을 腸絲(chronic 3)를 봉합하고 항생제 회석액을 뿌린 다음, 봉합사(silk)로 피부를 봉합하고 수술부위에 국소적으로 항생제를 주사하고 창면은 머큐롬을 바른 다음 붕대로 감아줬다. 동시에 항생제를 주사하였다.

수술받은 송아지는 수술후 일으켜 세우니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는데, 세 다리로 걷기가 몹시 불편했던지 뒤뚱거리면서 걸음을 걸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축주와 이웃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말은 하며 즐거워했다.

야외수술이어서 無菌의手術이 不可能했기때문에 感染가 걱정되었으나, 창면의 소독과 항생제 주사를 실시하였다. 다음날 수술부위에 심한 부종이 있었을뿐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다. 전날과 같은 후처치를 7日間 실시하였다. 수술부위는 깨끗하게 유합되어 있어 탈사를 하였다. 다리 하나가 없어도 먹을 것을 먹었고 어색하나 마 뒤뚱거리면서도 그런대로 걸음을 걸고 있었다.



사진 1 在側前肢切斷直後의 모습



사진 2 在側前肢切斷 7日後의 모습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서 四肢로 걷는 本能 때문에 절단된 다리도 땅에 털으려는 행동과 일어서고 앉을 때 절단 부위가 지면에 닿게 될 것이고, 또한 성장함에 따라서 전감골도 커지거 때문에 절단부위가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필자는 여지껏 소동물에서는 斷肢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大動物에서는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던 차에 이번과 같은 경험을 얻게 되어 여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4)